

◆ 이익주, “세계질서와 고려-몽골관계” (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, 2010)

I. 머리말

- ‘동아시아’ 개념의 역사적 변화(a.내포, b.외연, c.인식): 13~14세기 동아시아 범위의 확장
- 일국사를 넘는 국제관계사: 몽골 제국 질서 속의 고려-몽골관계사의 재구성

II. 13~14세기의 세계질서와 고려인의 ‘천하’인식

1. 13~14세기 몽골제국 중심의 세계질서

- 1990년대 후반 이래 새로운 몽골사 연구경향 (김호동, 스키야마 마사아키)
- 중국 중심 역사관 비판, 몽골제국 통합적 접근법 제시 (김호동)
- 한문사료인 『원사(元史)』보다 페르시아어 사료 『집사(集史)』의 중시
- 중국식 연호, 행정제도 채택, 한인기용=‘중국적’ 왕조체제 건설 X (몽골제국에 대한 분열사관과 ‘원조 건립’ 사관은 동전의 양면)
- 쿠빌라이 제국=‘대소 권력이 복합하는 일종의 세계연방’(스키야마 마사아키): 원(元)→ 대원 울루스 or 카안 울루스 (4개 울루스 중 하나) (4개 울루스 포괄하는 몽골제국 질서 속에서 카안울루스-고려관계 재규정 필요)
- 베트남, 일본은 몽골 ‘천하’에서 제외: 정치적 관계보다 넓은 경제적 교역권으로서의 몽골제국→ 13~14세기 동아시아의 범주=유라시아 대륙+몽골제국에 편입되지 않았지만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국가들

2. 13~14세기 고려인의 ‘천하’인식

- 1310년 원 무종의 제서, “천하에서 백성과 사직이 있어 왕 노릇을 하는 것은 오직 삼한 뿐” 해석 문제
- 이 때의 천하=몽골제국 전체, 그러므로 몽골지배층은 여몽관계를 몽골적 속국관계로 인식 (김호동)
- 제서 자체가 기존 중국적 세계질서의 작동 속에서 전달; 그러므로 여몽관계는 중국적 사대관계 (이익주)
- 『고려사』, 『원사』 등 한문사료 & 『제왕운기』 등 고려인 저술: 몽골=원=중국왕조, 양국관계=사대관계
- 원에서 보낸 국서에서도 고려를 독자적 국가로 인정 (一國之王, 外國之主)
- 여원관계에는 중화적/비중화적 요소의 공존
- 원 간섭기에는 몽골 요구에 따라 제후국 체제로 격하

III. 13~14세기 고려-몽골관계의 양상

1. 책봉·조공관계의 요소

1) 책봉

- 1259년 원종~공민왕까지 모두 원의 책봉 받음; 충렬왕 이후 책봉호=고려국왕, 행성승상, 부마 포함
- 이전의 책봉이 형식적 추인이었던 데 비해, 몽골은 일방적, 실질적으로 책봉권한 행사

-그러나 왕위계승의 정통성을 벗어나 자의적으로 고려 국왕을 '임면'할 수는 없었음 (ex. 충숙왕 때 심왕옹립운동 실패)

○ 책봉호 가운데 고려국왕 or 부마 우선성 문제

- 국왕<부마: 고려는 부마에게 수여된 투하령 (모리히라 마사히코)

- 국왕=부마: 고려국왕과 부마 지위가 일체화된 것이 몽골제국 내 고려의 특수성 (김호동)

- 국왕>부마: 즉위시 부마가 아니었던 or 끝내 부마가 되지 못한 왕들은 고려국왕의 책봉호만 가지고 인민과 영토 지배 (이익주)

2) 인장의 수여

-1260년 원종 책봉 직후 인장 수여; 거란, 금과의 조공책봉관계에서도 전례 있음

3) 연호와 반력

-1260년 몽골 조서, "한 무제 이후에...": 역의 제작과 수여에는 중국적 천자 이미지 강하게 투영

4) 견사와 조공

○ 일방적.과도한 조공 or 공녀의 존재가 여원관계 질적으로 차별화/조공책봉관계 파하는가?

-No. 1379년 명의 고려에 대한 과도한 공물 요구 사례, 1408년 명에 5명 공녀 사례 (이익주)

-국제관계의 조공이라기보다는 제국 내 물자의 진헌, 공출인 '6사의 수량'(모리히라 마사히코)

2. 책봉.조공관계 이외의 요소

1) 친조

○ 고려국왕의 직접 입조: 책봉-조근체제(朝權體制)?

- 몽골측 요구에 따라 수시 입조(모리히라 마사히코) or 국왕지위 변동 없고, 국내정치적 고려(이익주)

2) 6사(六事)

○ 몽골이 정복지역에 요구했던 6가지 사항: 납질(納質), 조군(助軍), 수량(輸量), 설역(設驛), 공호수적(供戶數籍), 치(置)다루가치

-몽골 유목 전통, 이전 조공책봉관계에 없던 일, 1262년 최초 요구 (1267년 베트남에도 요구)

-1270년 원종의 몽골후원 하 왕정회복 후 공호수적 제외한 나머지 이행: 징세 군역 부담 근거가 되는 호구 파악은 끝까지 막음

○ 1278년 충렬왕 쿠빌라이 친조 6사 재검토: 치다루가치, 공호수적 폐지 (행정,재정 독립이라는 점에서 조공책봉관계의 유지로 평가: 이익주)

○ 1278년 이후에도 일본원정 관련 조군, 수량, 납질 부담은 강화

3) 군대주둔

-1278년 이후, 일시적 파병 제외 고려에 몽골군 주둔 안 함

IV. 맺음말

○ 13~14세기 '동아시아 속의 한중관계사'=몽골 중심 세계질서 속의 여몽관계 연구

○ 추후 연구 지점

-제국 구성원리로서 4개 울루스(카안 울루스, 차가타이 울루스, 훌레구 울루스, 조지 울루스)의 상호관계 규명: 독립적 or 통일적

-13~14세기 동아시아의 구체적 범위: 몽골 중심 세계질서의 외연 확인 (몽골제국+고려, 일본, 베트남+그 외 여러 관계 국가들) → 여몽관계의 특수성과 보편성

